

주임신부: 김대하(사도 요한)
본당회장: 권병학(요한)
TEL : (905) 545-3004
FAX : (905) 545-7895

사순 시기

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.
(루카 13:3)

미사 시간	
미사	주일 11:00(본당) 주일 17:30(공소)
평일	
매주 (화) 20:00 매월 첫 (목) 19:00	
성모 신심	매월 첫 (토) 11:00
성시간	매월 첫 (목) 19:30

성사 일정

고해성사	미사 전, 후
견진성사	2 년에 1 회
유아세례	매월 마지막 주일
혼인성사	6 개월 전 면담
병자성사	병환 중/임종 전

교리 시간

예비자 교리	주일 10:00, 대철실
견진 교리	

신심 단체

자비의 모후 Cu	매월 2 주 미사 후
샛별 Pr.	매주 주일 9:30
평화의 모후 Pr.	매주 화요일 18:30
천상의 어머니 Pr.	매주 화요일 11:00
사도들의 모후 Pr.	매주 화요일 18:30
사랑하울 어머니 Pr.	매주 화요일 18:50
바느 성모 기도회	매월 1,3 주 (토) 10:00
울뜨레야	매월 1 주(목) 성시간 후



총 약정 목표액: \$110,000
실질 약정액: \$86,409 (10/25 기준) 적립금액(\$76,263)
※ 주소 및 신용카드 변동 사항은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본당 소식

◎전례 안내

- ▶ 3/ 23(일) 사순 제 3 주일 미사 (본당 11:00, 공소 17:30)
- ▶ 3/ 25(화) 사순 제 3 주간 화요일 (본당 20:00)
- ▶ 3/ 30(일) 사순 제 4 주일 미사 (본당 11:00, 공소 17:30)

◎십자가의 길 안내(매주 금요일 19:30)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• 3/28 꾸리아/바뇌기도회 | • 4/ 4 성모회/성가대 |
| • 4/11 주일학교 자모회/복사단/자모회 | • 4/18 구역장 |
- ※ 각 단체별 봉사자 4 명은 게시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금육재는 만 14 세부터 죽을 때까지, 단식재는 만 18 세부터 만 60 세

◎사목회의 • 이번 주 3/28(금) 십자가의 길 이후 양업실

◎구역장 월례회의 • 다음 주 미사 후 양업실

◎우리들의 이야기 (3월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)

내용은 제단체 및 구역 소개와 장점을 흥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기타 문의는 총무 김성수 베드로 형제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.
(각 구역과 신심단체, 주일학교, 복사단, 전례 해설단, 사목회 등). 완성된 파일은 전례분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◎가톨릭 교리서 해설 온라인 교육

- 수강 신청: 이해영 루시아
 - 수강료: \$40
 - 강의 시간: 3/13 ~5/29 매 주 수요일 (20:00 ~ 21:45)
- ※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◎대부/대모/대자녀를 위한 기도 알림

사순시기부터 밤 9 시에 모두 각자 대부모/대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.(주모경)

◎부활 판공 4/3(목) 본당 18:30 부터

◎부활 축하 공연 구역별 단체별

1곡은 성가, 2곡은 자유곡(개사 요망: 구역 이름, 부활)
문의: 부총무 박규혜 카타리나

◎2024 시니어 소득 신고 도와드립니다.

이승우(리차드)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.
준비된 서류는 재정분과에 3/31 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단체 소식

◎복사단, 복사단 자모회 회합 미사 후

공소 소식

◎십자가의 길 안내 매 주 일요일 4:50 pm 시작 (5 분전까지 성당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.)

◎공소 부활 판공성사 안내

3/30(일), 4/6(일) – 미사 30 분전에 시작

◎3 월 공소 축일자 – 3/30 김재근 조시모

구역모임 (소식)

3 월 목상복음 루가 9,28-36

(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, 그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)

2 구역: 3/23(일) 14:00 친교실

3 구역: 3/30(일) 14:30 친교실

친교식사

3/23: 2 구역(소고기 무우국 \$5/\$3)

3/30: 3 구역 4/6: 4 구역 4/13: 5 구역

우리들의 정성

지난 주 정성 (미사 참례자: 155 명)

주일현금	\$1275	교무금	\$80
감사현금	\$	성전건립	\$1030

감사합니다. 교구 현금 가난한 이를 위해 현금: \$565

도네이션: 주일학교(심현숙 카타리나)

◎3 월 축일자 명단 (11 명)

- 3/ 1 알비노(황창환)
- 3/ 7 태오플로(이정길)
- 3/12 세라피나(임선녀)
- 3/19 요셉(정시안, 조용구, 조운형, 이인규, 임종선)
- 3/22 레아(홍준희)
- 3/25 그라시아(김경희)
- 3/31 벤자민(이강현)

성 요셉 성월 기도

- 우리 주 예수님이 기르신 아버지시요 정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며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께 간절히 청하오니
- 하느님께 빌어 주시어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실히 따르게 하소서.
또한 죽을 때에 저희를 지켜 주소서.
- 아멘.

사순시기

‘사순 시기’는 ‘재의 수요일’부터 ‘주님 만찬 성 목요일’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다. 이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는 때이다.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사십 일 동안 채를 지켰고(탈출 34,28 참조), 엘리야는 호렙산에 갈 때 사십 일을 걸었다(1 열왕 19,8 참조).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유혹을 받으셨다(마태 4,1-2 참조). 이처럼 ‘사십’이라는 숫자는 하느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정화의 기간을 뜻한다. 그래서 이 기간에 희생과 극기의 표징으로 금육과 단식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한다. 교회는 금요일마다 금육재를 지키고, 재의 수요일과 주님 수난 성 목요일에는 단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키고 있다. 금육재는 만 14 세부터 죽을 때까지, 단식재는 만 18 세부터 만 60 세의 전날까지 지켜야 한다(『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』, 제 136 조 참조). 이러한 희생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드려야 하므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으로 완성되게 해야 한다. 이 기간의 미사 때나 말씀 전례에서는 ‘대영광송’과 ‘알렐루야’는 바치지 않는다. 그리고 제의 색깔은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.

전례봉사자

날짜	해설	복사	독서자	봉헌자
3/23	김성수 베드로	최다희 보나, 이준우 바오로	1 독서: 박규혜 카타리나 2 독서: 박혜영 수산나	김한욱 에릭 채정희 올리비아
3/30	권희진 요안나	유세진 라파엘, 박수은 헬레나	1 독서: 이은영 힐데가르트 2 독서: 강지원 요안나	박규혜 카타리나 박혜영 수산나
4/6	박규혜 카타리나	최다인 앤나, 이준규 안드레아 이준우 바오로, 이지민 이사벨라	1 독서: 김성수 베드로 2 독서: 이재순 데레사	이은영 힐데가르트 강지원 요안나

무화과나무 한 그루와 나

한윤식 보니파시오 신부
오륜대순교자 성지사목 겸 교회사연구소장

언제, 어디서,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예수님!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가 ‘나’와 결코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하느님이 주인이신 포도밭이라는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‘나’를 되돌아보게 하기 때문입니다.

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그저 땅만 차지하고 있어 당장이라도 잘려나갈 처지에 놓인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! 이 무화과나무는,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지니고 있을 뿐,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‘나’,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‘나’일 수 있습니다.

내가 사랑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도 사랑인지 되묻지 않고, 내 방식대로 하는 나만의 사랑에 갇힌 ‘나’일 수 있습니다.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, 많은 봉사와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지만, 실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고 희망하는 것을 똑같이 믿고 희망하며 살아가는 ‘나’일 수 있습니다.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넘어져 있는 ‘나’일 수 있습니다.

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가 천주교 신자로 살아가는 ‘나’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, 비유 속 포도 재배인이 포도밭 주인에게 청한 ‘올해’를 소중히 여겼으면 합니다. 이 ‘올해’라는 시간이 그리스도인인 ‘나’에게 주어진 시간, ‘나’의 회개를 위하여 하느님이 인내로이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‘나’의 영원을 결정하는 소중한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이 ‘올해’라는 시간을 의식하며, 포도 재배인이 주인에게 아뢴 그 말씀을, 하느님께 바치는 ‘나’의 약속과 다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. “주인님,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.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.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.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.”(루카 13,8-9)

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는 하느님, 그리스도인인 ‘나’는 이 하느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한 그루 무화과나무입니다. 그리고 그 열매의 이름은 ‘사랑’입니다.
2025년 희년에 맞이하는 사순 시기, 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는 ‘나’의 노력이 계속되는 은총의 시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



대 철 주 보

<http://cafe.daum.net/stpeteryu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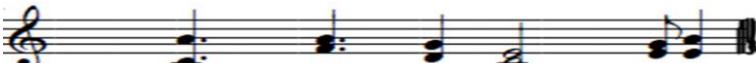
St. Peter Yu Catholic Church / 6 Heath St. Hamilton ON L8H 3Y5



사순 제 3 주일

(2025. 3. 23.)

제 1 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. 3,1-8 ↗ 13-15
화답송 시편 103(102), 1-2.3-4.6-7.8 과 11(◎ 8 ↗)



후렴.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.

-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. 내 영혼아, 주님을 찬미하여라.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. ◎
-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,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. 네 목숨을 구령에서 구해 내시고,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. ◎
-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,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.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,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. ◎

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. 10,1-6.10-12

복음 환호송 마태 4,17 참조

(◎ 그리스도님,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.)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 회개하여라.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. (◎ 말씀이신 그리스도님, 찬미 받으소서.)

복 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3,1-9